

##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 고찰\*

박 영 한\*\*

### Issues on the life of Kim Jeong-Ho, the greatest Korean geographer in the 19th century

Park, Young-Han

**요약:** 19세기 한국의 위대한 지리학자 김정호의 생애는 그가 남긴 불멸의 업적에 비해 너무도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후학들이 그에 대해 밝힌 내용들도 가설에 불과하다. 본고는 김정호의 출생 및 사망, 출신배경, 생활 근거지 및 지리학자로서의 생애 등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문헌 고증은 물론,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미진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전제는 김정호가 비록 평민 출신이었지만, 당시 '신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서양 사상 및 문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그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쟁점 중 '백두산 등반설' 및 '전국 답사설'은 일부 국사학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산자의 지리학적 소양과 연구성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또 다른 쟁점인 옥사설은, 국가이익에 도움을 준 김정호를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일제가 그를 쇄국정책 비판의 희생물로 조작하였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부인하는 대신, 대동여지도 제작에 간접적으로 간여한 관리들은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당시 시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 옥고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대적 배경이 개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이라 여긴 본 연구가설은 생애추적 연구에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와 함께 국내외 문헌의 추가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김정호의 생애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김정호, 사회·환경적 접근, 신지식인, 백두산 등반설, 전국 답사설, 옥사설, 신 옥고설

**Abstract:** The life story of Kim Jeong-Ho, the greatest Korean geographer of the 19th century, still remains virtually unknown despite his distinguished works. Extant research on his life to date goes little beyond speculation and suggestion.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former studies of his life(his birth and death, social background, life as a geographer, etc.) by examining several debatable issues using the socio-environmental approach as well as an in-depth survey of the literature. The premi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lthough Kim was middle class, he felt a great interest in western thought and culture as one of the new intellectuals at that time; this all greatly influenced his life and academic works. Despite the denial of some historians, I believe that it was possible for kim to climb Mt. Baekdu and to complete a nationwide field trip. This belief is based on his geographical talents

\* 본 연구는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국립지리원 2001)」에 게재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and achievements. However, I don't accept 'the hypothesis of his death in prison' considering several historical facts; I suggest 'a new hypothesis of imprisonment' instead. This reflects the contemporary influences and conditions of the times in which Kim Jeong-Ho lived and worked. If certain social circumstances play an important role on one's life and academic works, my new hypothesis based on the socio-environmental approach would be a useful research method for tracing one's life. My hope is that we will find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Kim Jeong-Ho's life by doing more research using the socio-environmental method as well as finding previously unknown literature about him from Korea and abroad.

**Keywords:** Kim Jeong-Ho, the socio-environmental approach, the new intellectuals, the hypothesis of climbing Mt. Baekdu, the hypothesis of nationwide field trip, the hypothesis of death in prison, the new hypothesis of imprisonment.

## 1. 들어가는 말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업적에 비해 너무나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다. 이 자체가 어찌면 고산자의 험난한 생애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한 분야에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 왔느냐의 평가는 그가 이룩한 업적이 대변해 주는 것이므로 고산자의 부정확한 일대기가 고산자의 업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시대 과학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학자의 생애를 밝혀 보려는 것은, 그것이 그가 이룩한 학문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본 연구는 출생연도조차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고산자의 생애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그에 관한 문헌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산자의 생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무엇을 지표로 그의 생애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호 선생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려면

그 시대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을 가미한 어느 정도의 가설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그의 생애와 업적 창출력을 추적하려 한다.

가설 : 고산자 김정호가 그 당시 평민 출신의 적극성을 지닌 소위 오늘날 일컬어지는 신지식인(新知識人)이었다면 서양문물과 그 사상에도 호기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와 더불어 국가 안보와 부흥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의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검토에 동원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외부적 요인으로, 그 시대의 대내외적 환경을 포괄하는 시대적인 배경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 요인으로 고산자 자신의 개인적 능력과 가족상황 및 주변 인물의 특징을 포함한다. 미시적 방법이긴 하나 본인의 일대기가 기록으로 보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지표는 그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다시 말해 공사를 막론하고 그와 교분을 맺었던 주변 인물을 찾아보는 것이다. 주변 인물들을 통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거

나 교분을 지닌 인물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 경로를 추정하거나 유추해 봄으로써 고산자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학들에 의한 고산자의 생애추적은 전래되어 온 각종 구전이나 문헌 고증에 의존하였다. 본고에서는 문헌적 고증은 물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선학 연구의 한계점을 다소나마 극복해 보려 한다.

## 2. 시대적 배경

19세기는 서양열강이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해 신기술과 군대를 앞세워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시기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동시에 원료 조달지로서 매력에 지닌 동아시아는 그들의 마지막 진출지였다. 선진 세력인 영국, 프랑스, 미국은 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쟁을 일으켜 불평등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고 유두하였다. 그 시초가 청국과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아편전쟁이었다(1840년). 프랑스 역시 자국의 선교사가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1858년). 그 후 러시아, 미국 및 독일 등도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동아시아는 실질적으로 서양 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으로부터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세기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통상개방 요구가 빈번해졌으며, 이 결과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많은 서양국가의 함대가 한반도에 출몰하는 횡수가 늘어났다.

순조 32년(1832년)에 영국 상선이 충청도 해안에

나타나 무역을 요구하였고, 헌종11년(1845년)에는 영국 군함이 다도해 부근을 측량하였으며, 1846년에는 프랑스 군함이, 1854년에는 러시아 군함이, 1866년에는 독일 상선과 미국상선이 접근해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가 발생하여 조선은 서양 제국과 안보전쟁을 하기에 이르렀다(이기백, 1993, PP 344-347).

한편, 대내적 환경은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서양의 새로운 과학 및 기술의 도입에 힘입어 농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의 성장이 현저히 이루어졌다. 특히, 도매상업의 발달로 상업자본이 형성되었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상권도 중요한 교역로를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업의 발달은 지방 특산품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무역도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체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을 지배층으로 하는 신분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양반이라는 신분층의 사회적 지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중인들도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가능해 지고, 신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것은 이전까지 어려웠던 양반계층과 평민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증가되고 활발해 짐을 의미하며, 또한 평민의 직업적, 사회적 활동이 확대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내적 변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양문물과 그 사상이 시대 사회변동의 기폭제로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서학은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국내로 전파되었으며, 이후 지식층의 서학에 대한 호기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들은 서양의 근대적 문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 서적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강은이 교차되어 왔다. 순조 때는 그 탄압이 심하지 않았으나, 현종 때(1839년)에 들어 서양의 신부와 신도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철종(1849-1863) 때에는 서양 선교사와 천주교 신도 수가 전국적으로 2만 명에 이르렀다. 대원군은 집권 초기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이었으나, 점차 통제와 박해를 강화하였는데, 1866년에는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천 명의 신도를 처형하였다(이기백, 1993, PP 337-345). 도시에는 천주교가 성행하고 농촌에서는 동학이 발생하여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평등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은 지구와 세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실증적 학문의 발달과 나라 밖 세상과 관련된 지식과 소식에 대한 동경이 커져갔다. 이처럼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는 학문의 체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삶의 방식, 그리고 개인의 지적활동의 추구 등 많은 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3. 고산자의 접속인물과 그에 관한 기록

#### 1) 고산자의 접속인물

고산자 사후에 그가 다시금 우리들 앞에 부각된 계기는 1925년 '고산자를 회(懷)함'이란 제목으로 2회에 걸쳐 연재된 동아일보의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 고산자 김정호 선생과 『대동여지도』는 근대

조선의 최대 국보라고 평가되었으며, 전국 답사설, 백두산 등정설, 『대동여지도』판목본 몰수설, 청일 전쟁시 양군의 『대동여지도』사용설 그리고 남문 밖 기념비 건립안 등을 다루고 있다(동아일보 1925년 10월 8일 및 9일자). 그 후 정인보의 고증 노력에 의하여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의 편찬자가 성은 김(金)이요, 자는 백원(伯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 1931년 3월 16일자)

그렇다면, 고산자 김정호의 접속인물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고산자에 대하여 어떤 기록들을 남겼을까? 1938년 호암은 최한기를 제1의 접속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다. 최한기가 청구도의 제언(題言)을 기록하면서, 김정호라는 성명을 명기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 역시 두 사람이 친구사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한기는 천문에 관한 사항을, 김정호는 지리에 관한 사항을 서로 분담하는 서약을 하였다는 설을 소개하고 있다(조선일보 1938, 3, 8-9).

문일평(1941)은 「조선 명인전」에서 유재건의 『이향견문록』(異鄉見聞錄) 중에, 고산 김정호 편을 소개하였다. 이병도(1969년)도 '인물한국사'에서 김정호를 다루면서 『이향견문록』 중 김정호 관련 내용을 우리글로 번역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동국여지고』는 『대동지지』를 가리킨 것이며, 이것을 탈고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향견문록』은 1862년에 집필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산자의 접속인물에 대한 국사학자 이상태의 연구는 새로운 문헌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이상태, 1988, PP 518-532), 최성환, 신헌 등 김정호를 도와주는 유력 인사가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최성환은 『여도비지』를 통해서 김정호와 접속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도비지』의 기록을 보면 최성환은 저자이고 김정호는 도편(圖編)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편지도는 김정호의 작품인 것이다. 최성환은 무관으로서 품계는 높지 않았으나 궁중 수호 직책을 담당하였으며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김정호는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서적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며, 『대동여지도』 편찬의 재정적 후원자로 역할하였을 것이라 보고 있다(원경열, 1991, pp 20-21).

한편, 김정호는 신헌의 도움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방여도』의 서문에 기록된 것처럼 국방을 담당한 관리인 신헌은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변사나 규장각에 소장된 지도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또한 그는 여러 지도와 지리지를 참고하여 완벽한 지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김백원에게 위촉하여 완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산자는 그로부터 자료수집 등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전국을 답사할 때, 신분보장이나 재정적 도움 등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김정호가 접촉한 인물들은 관료나 유명 학자였다. 관료 중에서도 대부분 안보와 연관된 인물이 많다. 최성환은 중인 출신으로 『고문비략』에서 행정 실무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며, 상공업자와 행정 실무자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었다(이기백, 1993, pp336-337). 유재건도 서리(胥吏) 출신이었고, 최한기도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다. 그는 일찍이 서양세계에 눈을 돌려 서양문물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학문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최한기는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뽑아 교육할 것과 쇄국정책을 폐기하고 문호를 열어 세계와 호흡을 같이 할 것을 주장한 사람이었다(이기백, 1993, p336). 이처럼

김정호가 가깝게 접촉한 인물들은 국가 안보를 생각하거나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 2) 접촉인물들이 남긴 고산자에 관한 기록

고산자에 관한 동시대 사람들의 기록은 지금까지 4건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도, 간결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편의 기록을 옮겨 실고자 한다. 최한기의 '청구도 제언'과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은 『한국인물대계』에 수록된 이병도(1972년)의 "김정호 편"에서 우리말 번역을 실는다.

### ■ 『이향견문록』

김정호는 고산자(古山子)라 자호(自號)하였는데 본래 기교한 재예(才藝)가 있고, 특히 여지학(輿地學-地理學)에 열중하여 널리 상고하고 또 널리 자료를 수집하여 일찍이 지구도를 만들고 또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여 손수 판각하여 세상에 인포(印布)하였다. 그 상세하고 정밀함이 고금에 견줄 데가 없다. 나도 그중 하나를 얻고 보니 참으로 보배가 되겠다. 그는 또 『동국여지교(東國輿地攷-大東地志)』 10권을 편집하였는데 미처 탈고치 못하고 죽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 ■ 청구도 제언

김우(金友) 정호(正浩 - 一本에는 正白皐라 함)는 소년 때부터 깊이 지지(地志)에 뜻을 두고 오랫동안 섭렵하였다. 모든 방법의 장단을 자세히 살피며 매양 한가한 때에 사색을 하여 간편한 집람식(輯覽式)을 발견하였다. 김정호는 방안(方眼)을 획성

(劃成)하여 부득이 산수(山水)를 끊고 주현(州縣)을 배열하였는데 표선(表線)에 의하여 경계를 살피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는 전폭을 구분하되 가장 자리에 선을 긋고 본조(本朝)의 역산표(曆算表)를 모방하여 한쪽은 위로, 한쪽은 아래로 하여 깊은 형세가 제 강역(疆域)대로 접하게 되고 반청반홍(半靑半紅)으로 수놓은 듯한 강산이 같은 색을 따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4. 생애관련 주요 쟁점

##### 1) 고산자의 신분배경과 가족관계

고산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그의 신분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고산자의 신분배에 관한 여러 설은 고산자에 관한 몇 가지의 기록에 의한 유추나 전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산자의 신분배에 관한 여러 사람들이 유추한 것을 종합하면, 그의 신분을 서민, 하층계급, 한사(寒士)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일평(1941)은 '미천한 계급에서 태어난 한사'로 정인보(1955)는 '빈천한 계급'으로 최남선(1947)은 '무명색한 서민'으로 불렀다.

이상태(1991)는 몇 가지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그의 신분을 유추하고 있다. 첫째로 『이항견문록』은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전기가 전해지지 않는 하층민 출신 중에서 각 방면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모은 책이며, 여기에 수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고산자는 하층계급 출신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신현의 『대동방여도』의 서문에서 김정호가 연령적

으로 상당한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신현이 김군백원(金君百源)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김정호는 신현과는 신분적 차이가 심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김정호는 족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상태는 이러한 자료를 내세워서 김정호는 미천한 평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후, 이박사(1999)는 그의 「한국고지도 발달사」에서도 위의 논조와 더불어 김정호는 잔반계층이거나 중인 계층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병도(1969)는, 고산자가 불우한 계급의 출신으로 별로 출세도 하지 못하고, 가정이 구차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했을 것으로 보았다.

「대한지리학회」주관의 고산자 심포지엄에서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한 이상태의 토론자로 나선 최창조(1991)는 '조선의 아들'에 나온 일설을 소개하면서, 고산자의 먼 조상은 한때 종6품인 사역원 한학 교수까지 한 적이 있고, 당파 싸움에서 밀려나 황해도 서남부에 자리잡은 장수산 기슭에 내려가 초야에 묻혀 살았으며, 김정호의 부친은 장수산 산성의 군교로 있다가 왜적의 침입으로 전사했다고 했다.

고산자가 수많은 서적을 독파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상황을 전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록 불우한 계급으로 전락하여 가난하고 권력은 없었지만 개혁과 실용을 몸소 실천한 선비로써 신지식인의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된다. 그 시대의 '신지식인'이란 과학적 소양을 지니면서 개방과 개혁을 몸소 실천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산자는 지도제작자이며 문필가로서 비록 불우하고 가난하였지만, 학자의 임무를 수행한 위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산자가 고전을 독파하고 그의 저술을 통하여 자신의 사고를 일반적으로 말하여지는 미천한 평민 출신

신이라기보다는 선조대로부터 몰락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신과 학식을 지닌 고고한 평민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산자에 대하여 미친한 하층계급이란 언급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전문인을 대접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말기의 조정을 비꼰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사고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그의 업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응분의 대접을 받지 못한 점을 대비시킴으로써 계급의식을 고취시킨 결과로 여겨진다. 그의 가족으로는 광우리 장사를 하는 아내와 남매 또는 외동딸을 두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 2) 고산자의 출생지와 생활 근거지

### (1) 고산자의 출생지

광복이후 국사학계에서 고산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출생에 관한 설이 분분하였다. 홍이섭(1964)은 고산자가 황해도 어느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였고, 이병도(1969)는 그러한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정형우(1974)는 출생지가 황해도라는 것이 전해졌을 뿐 황해도 어느 고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고산자의 생애에 관한 문헌적 고찰에 중점을 둔 이상태(1991)는 황해도 중에서 그의 출신 고을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황해도 봉산설이 지금까지 유력하였으나 토산이 출생지인 것 같다고 하였다. 『동여도지』의 편자가 「월성 김정호도편(月城 金正浩圖編)」으로 표기된 것과 『여도비지』에서 「오산 김정호도편」으로 표기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나뉠대로의 해석을 붙였다. 후자의 오산은 청도이기 때문에 청도 김씨라는 것이다. 전자의 「월성」은 무엇인가. 『대동지지』 황해도 토산현 조에서 토산의 옛 명칭이 월성인데, 이로 미루어 보아 고산자는 봉산 출신이 아닌 황해도 토산 태생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여도지』에서는 본관 대신에 출생지를 사용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전개에서 다소의 비약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성함 앞에 본관을 붙이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라면, 두 편 모두에 본관으로 통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는, 고산자가 『동여도지』를 저술할 때와 『여도비지』를 편찬할 때의 지명이 변경된 것이라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김정호는 그 당시의 고장 명칭인 '토산'을 사용하지 않고 왜 옛 명칭인 「월성」을 사용하였는가 의문도 남는다. 양보경(2001, p127)은 토산 읍지도가 매우 상세함을 들어 토산이 고산자의 고향일 수 있다고 하여 토산설에 동조하였다. 과연 토산의 고지도가 상세한 것이 그 이유일까? 다른 요인은 없을까? 윤일녕의 「관미성 위치고」에 의하면(1987), 삼국시대 초기의 토산은 백제의 주요한 전초기지였다. 국방상 중요도가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국방을 중요시했던 고산자가 교통의 요지로 변한 토산을 중시한 결과, 상세지도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토산설」도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추측하자면, 최초로 지리지를 쓸 당시에는 혹시 「경주 김씨」로 알았다가 그 후에 「청도 김씨」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산자의 출생지가 어디인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예리한 추리력과 통찰력을 지닌 소설가의 뜻을 존중한다면(정소성의 소설 『대동여지도』 참조), 황해도 어느 곳에 태어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2) 고산자의 생활 근거지

고산자가 황해도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서 언제 서울로 이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의 생활 근거지 즉 주거지에 대해서는 3가지 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첫째는 정인보(1931)의 남대문 밖에 위치한 만리재설이다. 정인보는 한진창의 말을 인용하여 고산자가 만리재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즉 그의 대인인 한세진은 고산자와 면식이 있고 그와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만리재설을 제시했다(동아일보 1931년 3월9일).

두 번째는 1925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한 남대문 밖 약현설(藥峴說)이다. 동아일보 내용 중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고산자의 유업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유허가 있었던 남대문 밖 약현(藥峴; 現 중립동)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추진했던 사실을 근거로, 이상태(1991, 1999)는 약현설을 내세웠다. 이와 더불어 이상태는 고산자의 후원자이며 친구였던 최한기가 남대문부근의 창동(倉洞)에 살았던 점등을 고려하면 고산자는 남대문 밖 약현 부근에 거주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고산자가 서대문 밖 공덕리에 살았다는 설도 있다. 이병도(1969)는 ‘고산자가 서울로 올라와서 남대문 밖 만리재에서 살았다고도 하고, 서대문 밖 공덕리(孔德里)에 살았다고도 한다.’고 하여 두 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정현우(1974)도 만리재와 공덕리라는 두 가지 설을 소개하였다. 하여간, 고산자의 출생지로 거론되고 있는 약현, 만리재, 공덕리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고 있음으로 남대문 밖 도성에 근접된 지역에서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인보의 만리재 설은 김정호와 면식있는 사람의 전언에 의한 면접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그 후보다 먼저 제기된 약현설 보다도 더 통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약현설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리재를 기준으로 고개의 도성 쪽이 약현이고, 고개를 넘어선 지역이 공덕리이므로 고산자의 거주지는 만리재 부근이라고 하여두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 (3) 고산자의 출생과 사망연대

고산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1862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향견문록』에서 유재건은 ‘김정호가 『동국여지고』(『대동지지』의 별칭으로 후세 학자들은 보고 있다) 10권을 편집했는데 탈고하기 전에 세상을 하직하였으니 정말 애석한 일이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후세의 고산자 연구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기록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김정호와 관련된 인물들을 추적하여 가능한 연대를 밝히려하고 있다.

문일평(1941)은, 고산자는 그 생사연월이 언제인지 알 길이 없으나 그의 지도 간행과 지지를 편찬한 연대에 의하여 그가 순조 초에서 고종 초까지 존재했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것이 그 생애시기를 밝힌 최초의 시도라고 보여진다. 덧붙여서 그는 순조 3년에 태어나서 고종 16년에 사망한 그의 친구 최한기와 거의 동시대인으로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홍이섭(1964)도 최한기와 동시기의 동년배로 보아 대차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광복이후 고산자의 생물연대를 밝히려는 시도는 국사학자인 이병도에서 비롯된다. 그에 의하면 (1969), 최한기와는 막역한 친구였으므로 연령이 서로 비슷했다는 점, 『대동여지도』의 재간(再刊)과 『대동지지』의 완성이 모두 고종 원년(1864)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그의 생존이 순조·현종·철종·고종 초의 4대에 걸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하였으며, 그의 향수가 60여세였다고 서술하였다.

고산자의 생물 연대를 구체적으로 1804~1866년 이라고 지적한 연구자는 김양선(1972)이다. 그러나 그는 연대추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고 언급한 이상태(1991)는 『대동지지』의 내용 검토를 통하여 고산자가 고종3년(1866)까지 생존했음을 밝혀내고 있다. 그의 『대동지지』내용 고찰에 의하면, 고종조에 민비가 고종의 왕비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종즉위 3년에 민씨를 왕비로 맞이하였으므로 고산자는 1866년 3월 이후까지 생존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박사는 출생 시기는 정확히 밝힐 근거는 없지만 1804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었다는 김양선의 생애추정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산자는 대체로 순조 초에 출생하여 고종 초까지 생존한 인물이며, 이것은 『이향견문록』의 기록보다 김정호가 몇 년 더 생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의 절친한 친우이자 학문적 동지인 최한기와 연관지워 그의 출생과 사망시기를 재음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한기가 1803년 출생하여 1876년에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 두 사람이 친구사이로 지내자면 우선 연배가 비슷할 것이다. 평민 출신인 김정호가 양반 계급의 최한기를 친구로 삼자면 그의 나이가 한두 살 많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김정호는 1801년이나 1802년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대

동여지의 내용으로 보면 1866년까지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옥사설의 신빙성이 미약하다면, 김정호는 1866년 보다 몇 년은 더 오래 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박성래(1997)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고 세계지도를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최한기(1803~1877)와 태어난 해와 죽은 해도 어찌면 비슷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비교적 근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배경이 안개 속에 가려진 신비 속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동여지전도』의 저자를 김정호라고 여기는 오상학의 연구(2001, p81)와 『동여도』의 출판시기를 보다 늦게 추정한 양보경(2001, p129)의 두 연구를 토대로 한다면, 고산자의 생존시기를 1869년이나 1872년으로 높일 수 있다. 김정호가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례에 속한다.

#### (4) 옥사설의 진위

##### ① 고산자의 옥사설 공방

고산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향견문록』에서 『대동여지도』를 편집하고 탈고하기 전에 세상을 하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처럼 어떤 연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사설은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고 한다(원경열, 1991. 이상태, 1991, 1999).

특히 옥사설은 일제시대에 제기되어 1934년 일어로 발행된 「조선어독본」에 '김정호전'이 수록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일제시대에 김정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925

년 10월 8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된 「고산자를 회(懷)함」이라는 연속기사라고 볼 수 있다. 그 기사 중에서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의 순사자(殉死者)로 뜻있고 가치 있는 사업의 값으로 화액(禍厄)을 당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어독본」에는 '병인양요가 일어남으로 자기가 간수하였던 것을, 어느 대장에게 주었고, 이것을 대원군에게 바쳤다. 이것을 보시고 나라의 비밀이 다른 나라에 누설되면 큰일이라고 하여 지도판을 압수하고 김정호 부녀를 옥에 가두었고 옥중의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전후하여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문일평(1941)은 「조선명인전」 김정호 편에서 '그 당시 국가가 민간에 의한 지도제작을 엄금하였으므로 투옥의 화를 입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분투 노력하여 학구적 목적을 관철하였다.'라고 옥고설을 내세웠다. 광복이후에도 옥고설은 간간이 이어졌다. 홍이섭(1964)은 「사상계」의 한국의 명저 소개에서 '한국사상 영원한 기념비적으로 평가되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여 나라에 바쳤을 때에는 그 대가가 옥고에서 더 나아가서 옥사로써 보답하였다'고 적고 있다. 정형우(1974)도 『대동여지도』와 연관된 옥고 끝에 죽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김정호의 옥사설과 『대동여지도』 압수설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의를 제기한 사람은 국사학자 이병도이다. 이병도(1969)는 대원군 집정기에 기밀누설 혐의로 판각을 소각 당하고 김정호 자신은 영어의 몸이 되어 그 뒤 옥사하였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옥사설을 부인하였다. 그 이유로, 『대동여지도』의 판각이나 인쇄본 또는 전사본이 아무런 수난을 겪은 흔적이 없이 전해오고 있다는 점과 쇠국을 고집한 위정자라 할지라도 투옥

까지 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투옥설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병도 이후 옥사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병도의 옥사설 부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하려한 학자는 이상태(1991,1999)이다. 그는 이병도의 옥사 부인설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이유를 첨가하였다. 예를 들면, 김정호 후원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그의 옥사설은 일제가 그들의 식민통치를 위하여 조작하고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옥사부인설은 서지학자 이종학(1995), 소재구(1997) 등에 의하여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② 신 「옥고설」시나리오

주로 역사학자들은 국가이익에 도움을 주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낸 김정호를 위정자들이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위대한 선각자를 쇠국정책의 희생물로 일제가 조작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옥사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 시대 사람들도 김정호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의 죽음을 아까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며, 의문사항이기도 하다. 고산자가 어떻게 사망하였으며, 훌륭한 지리학적 업적을 남긴 후 왜 홀연히 사라졌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시켜 상상력을 통한 색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김정호의 생애 마감과 연계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고산자가 어떠한 이유에서였던지 위정자들의 감시망 속에 있었거나, 혹시나 관청에 불려가서 곤

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행로를 뒤돌아 보고 허무를 느낀 나머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의 뒤편길에 묻혀 자신의 위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다.」 「옥고설 시나리오」의 전개는 그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학과 천주교의 전파와 수용, 개혁파들의 사상 그리고 상업의 발달과 지도의 보급 등을 연관시켜 보 고자 한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도 중국을 통하여 서양 문물이 도입됨에 따라 외부세계를 알고자 하는 지식인들은 서양의 물질세계와 사상에 빠져들었으며, 이것이 실학으로 성숙·발전한 것이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서구 열강의 동양진출과 함께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과학과 기술, 학문과 사상이 밀려들어옴에 따라 보수와 개혁간의 마찰이 빈번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잔존 양반세력과 평민 지식 집단이 주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김정호의 친구겸 학문적 동지였던 최한기는 명리보다는 실리를, 고립보다는 개방을 내세운 개혁파 학자였다.

최한기의 『추측록(推測錄)』중의 「동서취사(東西取捨)」에 의하면, 서양의 이기를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마땅히 취해서 이용해야 하며, 측량과 계산에 관한 학문 등은 실용의 가치가 두드러진 것이며, 서교(西教)가 천하에 만연하는 것은 근심할 것이 없고, 실용을 모조리 취해서 쓰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고 하였다(강재연, 1990, pp188-189). 나아가서 그는 신유교난(1801)과 그 후에 계속된 천주교의 탄압으로 많은 서학 연구자들이 사라진 것을 애통해 하였다. 1801년의 신유교란시에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에 수백의 천주교 신도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옥사되고 귀양을 갔다(강재연, 1990, pp172-1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서민들에게도 급속히 전파되었고 1831년에는 조선교구가 독립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이 파견되었다. 교세의 확장으로 탄압이 계속되었다.

1839년(헌종 5년)에는 을해교난과 1846년의 병오교난에 이어서 1866년에도 대대적인 병인교란이 발생하였다(강재연, 1990, pp185-186). 이때의 신도수는 거의 2만 명에 이르고 여러 천주교 서적들도 출판되었으며 의업에 종사하는 중인층 뿐만 아니라 농·공·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단연 많았다(이기백, 1993, pp337-338). 천주교의 평등사상의 파급은 조선의 국기와 체계유지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등장하였다. 한편,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지도의 보급도 늘어나게 되었다. 한 손에는 문명의 이기를, 또 한 손에는 교리를 든 서구인들의 진출에서, 양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찍이 증명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고산자 김정호는 최한기와는 학문적·사상적 동지로서 외부세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졌을 것이다. 서민 지식인으로서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고산자는 천주교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처지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서학과 천주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면서 조선사회에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토를 손바닥 보듯 하는 고산자의 지도는 대중적 보급의 확산으로 교인들의 접촉망 구축에도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지도의 보급은 차단되어야 할 물건이었다. 따라서 고산자는 위정자들의 감시망 속에 있었거나 관청에 불려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김정호가 교인 또는 천주교와 관계가

있었다면 심한 옥고를 치루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엮어 볼 수도 있다. 약현본당 백년사(1891-1991)에 의하면(1992), 오늘날의 중립동 약현교회는 문안의 종현(명동)본당에 이어 문밖 약현 언덕에 세워진 서울대학교구의 두 번째 본당으로 설립된 교회이다. 약현성당 관할구역은 도성사대문 밖의 전 지역을 관할하였다. 도성주변의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송도(지금의 개성)를 지나 황해도 백천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이래 무수한 박해로 인해 숨어 다니며 군난을 피해 다닌 교우들이 많았다. 사대문 밖에만 해도 1882년경에는 청파동 지역에 132명, 모화관(독립문지역) 187명, 아오개(아현지역) 380명, 서대문 밖에 79명의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함께 모여 교리공부를 할 수 있는 공소와 교우촌이 있었다. 103위 성인 가운데 44위의 성인이 서소문 밖 순교 성지에서 순교하였으며, 약현성당의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에는 13위 성인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약현본당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본당 전체를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을 산교육의 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김정호의 생활 근거지였던 약현일대는 천주교와 오랜 연관을 지닌 지역으로 곳곳에 신자마을이 산재하였으리라 짐작된다.

1991년에 개최된 「고산자 심포지움」의 토론자로 참석한 신중성 교수도 김정호와 천주교와의 관련 가능성설을 제기하려 한 적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동여지도』를 만든 그 자체라기보다는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지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개인의 일로 옥고를 당하였다면 『대동여지도』를 제작할 때 관여했던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었

을 것이다.

본 고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가설은 좀더 시간을 두고 자료 수집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시대적 배경이 개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 가설은 생애 추적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5) 지리학자로서의 생애 : 백두산 등반 및 전국 답사설

예부터 지리학자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사는 땅에 관한 정보의 체계화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 즉 우리 땅의 모습과 사람들이 활동하며 남긴 삶의 흔적을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글로써 서술하는 지지의 저술이다. 고산자는 일찍이 지도제작과 지지편찬을 수행한 보기 드문 지리학자이다. 이 두 가지를 수행하려면, 문헌 수집은 물론 현지답사가 필수적이다. 가서 보지 않고는 정교한 지도와 정확한 지지를 편찬·저술할 수가 없다. 이 장에서는 현지답사와 관련하여 학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백두산 등반설과 전국 답사설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고산자에 관한 논설들을 검토하여 보면, 고산자가 지도를 편찬하고 지지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과연 백두산을 등반하고 전국을 답사하였겠는가라는 물음에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발견된다. 대체로 일제시대에 고산자에 관한 논설은 긍정적인데 비하여 광복이후 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듯 하다. 1925년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백두산을 7회 등정하고 팔역의 산천을 샅샅이 답사한 것으로, 「조선어독본」에는 팔도답사 3회, 백두산 등정 8회로, 문일

평(1941)은 답사로서 기존자료의 수정과정과 정확성을 기하였다고 하였다. 일제시대의 긍정성은 고산자의 실학적, 실천적 사상의 반영으로 보인다.

광복이후 정인보(1955)도 「담원국학산고」에서 백두산 등반 7회설을, 1960년대의 홍이섭(1964)과 1970년대의 정형우(1974)도 구전되어오던 백두산 등반설과 전국 답사설을 받아들이면서, 실학정신을 몸소 실증한 고산자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병도(1969)는 전국 두루 답사설과 백두산 왕래설을 부인하였으며, 자료보완을 위한 부분 답사설은 인정하였다. 특히 이병도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지면에 반복 발표함으로써 후학 역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된다. 전상운(1976)도 그의 「한국과학기술사」에서 '별 직업 없이 백두산을 7차례나 왕복할 만큼 경제적 여유를 가졌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이상태는 고산자의 행적에 관한 이병도의 설을 문헌검증을 통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이상태, 1991), 그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국을 두루 답사하거나 백두산을 등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고지도와 문헌을 참고로 하여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를 편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당시의 교통관계, 김정호의 경제력과 체력, 백두산 호랑이의 존재 등으로 두 설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박사는 「한국 고지도 발달사(1999)」에서도 백두산 등정설은 부인하였으나 전국 부분 답사설은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프랑스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단빌이 그 당시로서는 정확한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는 방동인(1985)의 글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답사 없는 지도 작성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

으로 보인다.

많은 정보가 수록되는 대축적지도에는 소축적의 세계지도와 달리 실제 답사 없이는 정확한 지도의 제작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하나의 체계 하에서 지도를 제작하려면 현지답사는 필수적이다. 현대 지도의 구비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대동여지도』는 현대적 측량에 의한 실측도라기보다는 나침반을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경렬, 1991 b). 대한지리학회 주최의 고산자 심포지움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창조(1991, pp144-146)는 이상태 박사가 전국 답사설과 백두산 등정설을 부인하면서 제시한 여러 이유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고산자는 환갑이 넘게 생존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큰 지병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자신의 지리산 등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교통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빈한했던 고산자는 무슨 경제력으로 전국을 답사할 수 있었을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므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소설 『대동여지도』」를 집필한 문학자 정소성은 백두산 등정과 전국을 두루 답사하는 과정을 소설로 표현하면서 그를 약재 수집상 및 초보 한의사로 묘사하였다. 비록 픽션이지만 전국을 답사하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부업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고산자는 정말로 백두산을 등정하였는가 또는 전국을 두루 답사하였는가의 문제 제기는 쟁점화의 성질이 될 수 없다. 지리학도가 지도를 제작하고 지역 실정을 체계적으로 저술하려면 현지답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지역을 측량기계에 의하여 실측하였는가 라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정부의 도움 없이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고산자 선생이 만든 지도는 지형도가 아닌 조선인

의 삶의 행적을 체계화시킨 인문지리적 현상이 담긴 지도이다. 이러한 작업의 기초는 기존의 지도와 지리서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초고가 만들어지고 실측을 병행한 현지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 없이는 가치 있는 지도나 지지 저술이 탄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자료 만에 의존하였다면, 변화하는 지표 현상들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산자 선생은 백두산에도 등정하였을 것이고, 전국을 두루 다니며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마치는글

고산자의 생애 고찰은 그의 빛나는 업적과 그가 걸어온 인생 역정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그의 생애에 얹힌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고산자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고산자의 인물성격을 소위 오늘날 일컬어지는 신지식인으로 상정하였으며, 그 시대의 신지식인이란 과학적 소양을 지니면서 개방과 개혁을 실천한 지식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설정은 그의 업적에 상응하는 생애를 밝혀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여겨졌다.

그가 남긴 불멸의 업적에 비하여 그의 생애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기록되고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후학들의 추적에 의하여 불확실하게나마 그의 인생 경로의 윤곽이 다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고산자의 생애를

좀더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의 업적 형성에 미친 영향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생애 고찰방법은 고산자와 접촉한 인물과 그 기록을 일차로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고산자의 업적을 살펴건 데, 그는 불굴의 투지를 지닌 초인적인 지리학자였으며, 뚜렷이 밝혀지지 않는 그의 인생 역정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소설의 주제로 등장할 수 있는 파란 만장한 생애였다.

서민이 아닌 책상다리 꼬꼬 앉은 양반의 신분이었다면, 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넓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다면, 불굴의 애국정신과 실천적 과학정신을 지니지 않았다면, 고산자는 결코 불후의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고산자 선생은 지리학도의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탐험 정신을 일찍이 실행에 옮긴 조선의 아들이었다. 비록 선생은 '가난하고 권력 없는 선비'에 불과하였으나 다가오는 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한 지사(志士)였다. 고산자는 천우이면서 학문적 동지이자 사상적 동지인 최한기와 더불어 서양지식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근대적 과학자였다. 고산자는 실용에 눈을 뜨고 개방과 개혁을 몸소 실천한 근대적 지식인이었다. 장영실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신지식인이었다면, 김정호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신지식인이었다.

본고에서 제기한 「신 옥고설」시나리오, 고산자의 인물성격에서 유추될 수 있는 점을 그 시대상과 연관지은 것으로서, 고산자는 서학에서 비롯된 천주교와 연관되어 옥고를 치른 후 잠적·사망했을 것으로 본 것이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이 개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본 가설은 역사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진 그의 생애 추

적에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금후에도 많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고에서 고찰한 고산자의 생애 추적은 명확히 밝힌 것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한 느낌 든다. 더욱이 고산자가 베일에 가린 인물처럼 보이는 것은, 빛나는 업적에 비하여 세상 속에 남겨진 그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가 단지 문제제기에 머문 것도 국내에서 발견한 극소수의 문헌과 한정된 소수의 연구물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본고의 한계이다.

고산자의 생애와 업적을 소상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고찰하려면, 그에 관련된 문헌을 더 많이 발굴해 내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동시대의 여러 문집을 비롯한 문헌과 혹시나 있을 고산자 자신의 기록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인용하지 못한 고산자에 관한 외국연구물을 수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가져간 많은 고지도와 문집 등의 문헌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역사적 문헌과 연구물들의 발굴은 보다 명료한 고산자 생애고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한 고산자에 관한 재조명은 금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김양선, 1972a, "한국 고지도 연구초", 『매산국학산고』, 숭실대학교 박물관, pp.253-275.  
 강재연, 1990, 『조선의 西學史』, 민음사.  
 김양선, 1972b, "한국 실학 발달사", 『매산국학산고』, 숭실대학교 박물관, pp.117-161.

김정호, 「대동지지」.  
 대한지리학회, 1991,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사상(이상태, 1991)의 토론 자료" 『지리학』26(2), pp.144-150.  
 동아일보, 1925. 10. 8 및 10.9.  
 문일평, 1941, 『朝鮮名人傳』 권3, 朝光社, p.p401-408.  
 박관섭, 1987, "대동여지도의 도법 및 계보에 관한 역사지리적 고찰", 『박관섭 화갑기념논총』, pp.115-153.  
 박성래, 1997, "대동여지도 만든 신비속 인물 김정호", 『과학기술』 332, pp.24-34.  
 방동인, 1985, 『韓國의 地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167-190.  
 소재구, 1997, "김정호 원작 대동여지도 목판의 조사", 『미술자료』 58, pp.124-136.  
 약현성당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1992, 『약현 본당100년사(1891-1991)』, 카톨릭 출판사.  
 양보경, 1991, "고산자 지지의 현대적 평가", 『지리학』26-2, 대한지리학회, pp.164-173.  
 양보경,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지 편찬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pp.103-145.  
 오상학,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pp.27-100.  
 원경렬, 1991a, 『大東輿地圖의 연구』, 成地文化社.  
 원경렬, 1991b, "대동여지도 : 현대 지도학적인 고찰", 『지리학』26-2, 대한지리학회, pp.151-158.  
 유재건, 1862, 『이항견문록』.  
 윤일녕, 1990, "관미성 위치고; 광개토왕 비문·삼국사기·대동지지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기백, 1993, 『韓國史新論』, 一潮閣.  
 이병도, 1969, "김정호", 『한국인물사』4, 박우사, pp.207-220.  
 이병도, 1971, "지도, 지지의 집대성자로서의 고산자 김정호", 『내가 본 어제와 오늘』, 박영사, pp.122-142.  
 이병도, 1972, "김정호", 『한국인물대계』, 박우사, pp.247-260.  
 이상태, 1991,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사상", 『지리학』26-2, 대한지리학회, pp.139-144.  
 이상태, 1999, 『한국고지도발달사』, 해인, pp.210-241.  
 이종학, 1995, "고산자 김정호 옥사하지 않았다", 『월간경기』 7월호, pp.38-42.  
 전상운, 1976, 『한국과학기술사』, 정음사, pp.342-348.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 고찰

정인보, 1955, 『瀛國學散稿』, 문교사.

정형우, 1974, "김정호, 발로 엮은 한국지도", 『한국의 인간상』 3, 신구문화사, pp.388-399.

조선일보 1931, 3. 16.

조선일보 1938, 3. 8 및 3. 9.

최남선, 1947, 『국민조선역사』, 동명사, pp.178.

최한기, 『명남루 전집』 1-3, 여강출판사.